

# 조선산업



## 조선업 전망은 조선소가 아닌 선주들이 만든다

산업분석

2023. 11. 10

대표 박무현

treaboat@treaboat.com

### 산업 전망

#### 선박 수요 전망은 선주들의 의사결정

조선소는 선박 주문을 받아 선박을 건조하는 기업이다. 이런 조선소의 사업 전망을 결정 짓는 것은 조선소가 아닌 조선소에 선박 주문을 맡기는 선주들이다. 선주들이 선박 주문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이 조선산업 수요의 미래를 결정한다. 조선소는 선주들이 주문을 늘릴 때 성장기를 맞이하고 반대로 주문이 급감하면 쇠퇴기를 맞이하는 수동적인 입장이다.

선주들이 선박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물동량 흐름을 분석해 미리 화주와 용선계약을 맺어야 하고 선박 금융을 일으켜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선소의 선박 주문 계약은 선주들의 수고로움이 해결된 이후 결정되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로 볼 수 있다.

#### 조선소는 조선업의 미래를 모른다

조선소에서 목소리가 높아질 때는 단 한번, 수주잔고가 늘어나 있을 때이다. 하지만 이 때는 선주들이 선박 주문을 줄이려는 시기가 되므로 조선소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 지난해 4월 한국조선해양 최고 경영자가 “조선산업은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평가하자마자 선박 발주량은 급감했다. 조선소 최고 경영자 역시 조선업 전망을 알지 못하며 조선소가 조선업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 대선조선의 워크아웃, Wärtsilä의 가스 솔루션 매각도 선주들의 수요

지난달 대선조선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신규 수주는 중국에 대부분 빼앗긴 대선조선의 수주잔고는 내년이면 바닥을 보일 예정이다. Wärtsilä에서는 LNG/메탄올 연료 공급장치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대선조선의 수주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Wärtsilä의 사업부 매각은 결국 선주들의 움직임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선주들이 대선조선을 선택하지 않고 친환경 연료 공급보다는 스크러버 장치를 선호하는 것이 조선소와 선박 엔지니어링 기업의 미래를 결정해주고 있다. 조선소에서 슈퍼 사이클을 강조한 지난해 4월 이후 선박 발주량이 급감한 것도 선주들의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산업 전망과 기업 경영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은 물론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